일본의 보조금자기진단시스템 및 보조금의 통합교부금제도 도입사례

- 宮代町 및 山形縣의 보조금운영 개혁사례 -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서 론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제도 및 시도비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개선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별사업단위 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를 들 수 있다. 보조금의 성격상 포괄의 범위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정체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여 포괄보조금화는 아직도 개선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둘째, 보조사업에 대한 효과 및 성과를 진단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나 사업의 추진성과에 근거하여 보조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

는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도입은 되지 않고 아직도 개선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의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의 많은 자치단체가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개혁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宮代町(미야시로마찌)의 통합교부금제도의 도입은 보조금을 교부금화하여 실제적으로 포괄보조금화를 실현하는 개혁사례로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山形縣(야마가타현)의 주민참가에 의한 보조금자기진단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혁사례는 우리나라 보조금제도의 개선과제로 안고 있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새로운 제도로서 도입하여 매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II. 일본의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에 대한 최근 동향

일본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제도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폐해도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국가적 입장에서 보아 일률적이고 종적행정에서 오는 경직성에 의해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지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고보조금의 교부에 의해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지기 쉽다는 점이다. 셋째,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통한 중앙정부의 관여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창의성을 살린 자주적인 행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고보조금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비도를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보조조건이나 번잡한 교부절차 등이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 그리고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고 보조금제도운영에 있어 민주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보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최근 동향을 보면,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2차권고(1997년)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화 및 폐지를 들고 있다. 지방의 사무로서 동화되거나 이미 정착된 사무에 관계되는 보조금은 일반

재원화함과 아울러 인건비에 관계되는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해서도 일반재원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금액이 소액인 보조금은 폐지 또는 일반재원화를 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몰제방식의 추진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조금제도에 대한 개혁의 첫째는 통합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성청개혁기본법 제46조2호에 의하면, 개별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가능한 한정적으로 하고 기타 사업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는 가능한 개별보조금을 대신하여 적절한 목적을 부여한 통합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통합보조금의 최대의 목적은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46조2호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개소 및 내용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소를 붙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는 보조금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지방분권추진계획을 고려하여 공공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중 일부를 폐지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사업실시가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증가하는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의 책정 등을 통해서 소요재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등의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에서의 국고보조금의

통합화 및 보조금의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량권의 확대 등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각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사례로 山形縣(아마가타현)의 시정촌통합교부금제도의 도입 및 宮代町(미야시로마찌)의 주민참가에 의한 보조금자기진단시스템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출된 의의있는 보조금제도 운영의 개혁사례로 볼 수 있다.

Ⅲ. 山形縣(아마가타현)의 시정촌통합교부금제도 도입

1. 도입배경

광역자치단체인 山形縣(아마가타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추진수단으로 1998년도에 山形縣市町村統合交付金制度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래의 아마가타현의 단독보조금의 상당부분을 통합화하여 비도를 규정하지 않는 재원으로서 시정촌에 교부함으로써 시정촌의 창의에 의한 지역실정에 맞는 보조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평가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아울러 보조금의 신청사무에 대한 사무량의 축소를 기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제도운영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2000년 4월 지방분권 일괄법의 시행에 의해 지방분권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시정촌에 대한 분권추진을 재정면에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2. 제도도입의 기본방향

가. 보조금제도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

아마가타현의 시정촌통합교부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주요 관점은 보조금제도가 갖는 기능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의 결과중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보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은 첫째, 보조금에 따라서는 보조금교부자와 보조사업자간의 책임소재가 애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보조금의 교부를 통한 관여가 시정촌 및 지역주민의 지혜나 창의를 활용한 자주적인 행정 및 사업의 추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보조금은 구체적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고 또한 복잡한 교부절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반하고 또한 재정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약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시정촌의 지역사업의 추진이 보조금의 예산확보 상황에 좌우되고 있어 본래 지역에서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는 등 보조금이 확보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는 풍토를 조장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보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촌통합교부금제도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금화하여 통합화하고 나아가 비도를 규정하지 않는 재원으로서 시정촌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나. 평가시스템의 모색

종래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고 단지 보조조건대로 소극적으로 추진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교부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에 비중을 두고 결과중시의 관점에서 교부금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즉, 기존에는 해당 보조사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입했는가 혹은 보조요건대로 사업을 실시하였는가에 검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을 교부금제도로 전환하면서 사업추진 결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편익을 가져오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평가의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작업을 통해서 야마가타현의 교부금사업 그 자체의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아가 평가시스템을 실시함으로써 야마가타현의 각 부국에 있

어서도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이나 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시정촌별로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등의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시스템적으로 확보됨으로서 시정촌의 사업추진 상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야마가타현의 행정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3. 제도의 특징

가. 교부금은 비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원

교부금은 야마가타현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하여 교부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면서 그 비도는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실현하고 나아가 시정촌에 대한 분권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서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정촌의 창의에 의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 교부금액은 산정기준에 의해 합산

시정촌의 계획적인 행재정운영을 위하여 교부금액에 대한 예측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표1>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산정기준은 야마가타현 입장에서 시정촌에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사업 및 이에 대한 야마가타현의 표준부담액을 표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야마가타현의

<표1> 산정기준의 예

사업명	기초수치등	산정기준(단위:천엔)
빛나는 四季가꾸기 및 심 불44창조추진사업	사업실시의 유무	일반분 : @2,000×1/2 특별분 : A형@2,000×1/2 B형@3,000×1/2 C형@2,000×1/2
초중학교음악교실지원사업	사업실시의 유무 당해연도 4월1일 현재 실시초등 학교의 아동수 및 실시중학교의 생도수	@0.8×1/2×실시초등학교아동수+ @0.9×1/2×실시중학교생도수
통계조사원확보대책사업	당해연도 4월1일 현재 등록조사 원수 최근 국세조사의 조사구수	@80+@0.982×산정조사원수
장애자소규모작업소운영조 성사업	당해연도 4월1일 현재 A형, B 형, C형의 소규모작업소수	A형 : @2,991×소규모작업소수 B형 : @1,994×소규모작업소수 C형 : @997 ×소규모작업소수

정책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 교부금사업에 대한 효과검증 실시

교부금이 원래 야마가타현의 고유재원에서 지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야마가타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고려하고 결과중시주의 입장에서 교부금의 활용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있다.

4. 교부금의 산정

가. 산정대상사업

교부금의 산정대상사업은 첫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정촌의 창의노력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업,

둘째, 이미 시정촌의 사무사업으로서 정착되고 있는 사업, 셋째, 교부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조금의 신청사무등의 사무량 축소에 효과적인 사업 등의 관점에서 선정하고 있다.

그 결과 야마가타현단독보조금을 중심으로 보면, 1998년도에는 37개 사업 10억엔의 보조금을 교부금화하게 되었고 이는 종전 보조금의 약 2/3에 상당하는 사업을 통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998년도는 36개사업 약 15억엔 그리고 2000년도에는 40개 사업 약 14억엔을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교부금사무의 체계

시정촌에의 교부금액은 기초수치 등과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 시정촌에

서 5월말까지 제출되는 기초수치 등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사업별로 기초수치 등을 산정기준에 대응시켜 전 사업의 산출결과를 합계한 것이 해당 시정촌의 교부액이 되고 7월말에 일괄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을 교부받은 시정촌은 익년 5월말까지 교부금충당결과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5. 제도도입의 효과

야마가타현의 통합교부금제도 도입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정촌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시책의 추진이 보다 제고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8년도 교부금의 활용상황을 보면, 시정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업추진에 있어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관리가 적절하게 행해지게 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보조금제도와는 달리 불란티어를 모집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특성이 보다 살리게 되고 나아가 주민참가가 촉진되는 성과를 올리는 시정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표2>참조).

둘째, 결과중시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보다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8년도에 시정촌이 교부금을 충당하여 실시한 사업

<표 2> 제도도입으로 인한 사업추진 효과사례

사업명	실시상황 및 효과
빛나는 四季가꾸기 및 심볼44창조추진사업	교부금화로 인하여 보조금사업때의 동일사업과는 달리 시정촌의 자주성 및 독자성이 한층 발휘되게 되었다.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실행위원회형식에 의해 주민이 참가하는 사업 및 국제적인 문화이벤트등도 실시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보다 향상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초중학교음악교실지원사업	18개의 시정촌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대학음악과의 수업과목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여 적용하는등 아동 및 생도의 발달단계에 맞게 사업내용을 개선하는 효과 및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
자연공원미화청소활동사업	11개 시정촌에서 실시되어 있는데, 자연공원내의 광장, 캠프장 기타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청소활동이나 정기적인 순회지도에 의한 계몽활동이 실시되는 등 해당 시정촌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또한 창의적으로 독자적인 사업내용의 추진이 나타나고 있다.
헌혈추진사업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던 헌혈자수가 1998년에는 증가하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에 대해 평가하여 그 요지를 메스컴 등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다.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각 시정촌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대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정촌을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야마가타현의 기획 및 입안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야마가타현의 각 정책담당과에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시책의 기획 및 입안에 활용되고 있다.

넷째, 사무의 간소화 및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야마가타현의 각 정책담당과의 사무종사 시간이 약 1/2로 줄어들고 야마가타현과 시정촌간의 교부신청등 문서의 양이 약 1/4로 줄어드는 등 대폭적인 사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IV. 宮代町(미야시로마찌)의 보조금자기진단시스템 도입

1. 도입배경

미야시로마찌는 埼玉縣(사이다마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인구는 약 3만 5,000인이다. 일본의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의 실시에 의해 세수가 감소되는 등 어려운 재정환경에 있다.

거품경제의 붕괴후 東京都(도쿄도)의 베드타운으로서 도쿄도의 지가하락등의 영향을 받아 미야시로마찌의 인구가 다소 감소하여 주민세가 전년대비 5.4% 감소하고 또

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부조비가 증가하고 있는 등 재원의 관리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가에 의한 자기진단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2. 행정개혁의 추진

가. 지방분권을 위한 宮代型행정개혁

행정개혁이라 하면 경비절감이나 직원삭감등 수자로서의 효과나 평가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행정개혁에 의해 주민의 삶이나 환경이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저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미야시로마찌에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주민에 밀접한 행정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1994년부터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역가꾸기의 장래상이나 목표를 세우고 무엇에 얼마만큼의 경비를 지출하고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이 참가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방향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宮代型행정개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宮代町行政改革町民會議의 설치

미야시로마찌에서는 1996년 5월에 주민참가에 의한 제2차 행정개혁개요를 책정하고 동년 11월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시

계획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앞서서 책정하고 있다. 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행정조직체계로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1997년 7월에 宮代町行政改革町民會議를 설치하여 개혁에 대한 진행관리 및 추진방향에 대해 제언받기로 했다.

동회의는 의회대표 2명, 주민대표 6명, 기타 지역가꾸기의 전문가 1인을 포함한 합계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회의에서 행정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나 개혁의 프로세스를 공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행정개혁을 주민속에 파고들어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도 참가하게 하는 등 폭넓게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후 동회의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2000년 현재까지 5차에 걸쳐 답신을 제출하고 있는데, 보조금제도의 운영개혁과 관련해서는 1997년 12월에 제출된 제2차 답신으로 획기적인 보조금운영제도의 개선을 제기하고 있다.

3. 보조금제도운영의 개혁

가. 기본방향

미야시로마찌에서는 보조금제도운영의 개혁에 있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나는 보조금의 일률삭감을 들 수 있다. 이는 세출삭감효과가 있고 추진하기 빠르지만 여러 가지 효과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수혜단체의 저항이 있다는 결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방법을 배제하고 있다. 또 하

나는 근본적인 개선에 의한 보조금의 유효 활용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이 소요된다는 결점이 있으나 보조금제도운영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는 또한 미야시로마찌의 행정개혁의 이념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미야시로마찌는 1998년 직원1인당 주민수가 159명으로 사이다마현내에서 가장 적다. 적은 직원으로 보다 좋은 행정 및 주민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하여 예를 들어 주민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를 행하는데 있어서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이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미야시로마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측의 의식이 적극적인 주민의 참가를 촉진함과 동시에 주민의 의식양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나. 보조금의 교부 및 보조율의 설정

미야시로마찌는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가능한 사업비보조로 대체하고 단체운영비보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도 동액의 보조금이 특정 단체등에 교부되는 등 기득권익화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운영비보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보조금이 기득권익화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행정측에서도 왜 보조금을 지출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수회를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즉, 보조금의 목적 및 내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음미하여 그 방향을 적극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개혁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미야시로마찌는 보조금의 개혁에 있어서 보조금을 모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복지시책이나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에 관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단체운영비보조중 미야시로마찌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설립을 추진한 단체등의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전제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측에서 정책적인 효과 및 단체의 자립상황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 잉여금의 반환

보조금사업의 추진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미야시로마찌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잉여금의 반환은 당연하지만 이는 단체보조에서 사업보조로 보조금의 성격을 전환함으로써 추진이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표주의에서 영수서등의 증거서류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라. 보조금심사회의 설치

보조금제도의 개선에 있어 보다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각 담당과에서 심사 및 교부사무를 행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등에 있어서 심사하는 기구를 1998년 4월에 설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야시로마찌의 직원만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고 있으나 향후 주민, 전문가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 사전설명과 보조금에 대한 연수제도의 확립

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단체등에 대해 보조금의 성격, 현상 등을 보다 깊이 인식하게 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비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개선전에 이를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8년 6월에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동설명회에서 후술하는 보조금자기진단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졌다. 이는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는 오해를 받지않고 보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충분한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주민에게 있어 유익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 보조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향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측이나 교부받는 측

도 보조금의 목적이나 사업추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토양가꾸기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의견교환의 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4. 보조금자기진단시트에 의한 진단의 실시

가. 보조금자기진단시트

보조금교부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교부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기준은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 명확한 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야기마찌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점수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보조금교부단체 스스로가 자기진단(자기평가)을 하고 동시에 행정측에서도 각 담당과에서 같은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책평가 혹은 행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으나 평가를 행정측과 서비스를 받는 측 상호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미야기시로마찌방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보조금의 자기진단 실시

자기진단은 1999년 4월에 제1회가 실시되었다. 자기진단은 92개 단체가 실시하였고 10개 항목의 설문을 50점 만점으로 진단하고 있다. 자기진단시트는 50점 만점으로 자기 자치단체를 진단하는 것으로 자기

진단의 최고는 49점이고 최저는 24점으로 평균은 36점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행정측이 실시한 평가의 최고는 49점이고 최저는 24점이고 평균은 43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진단은 모든 단체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점수를 일반인에게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측이 실시한 점수는 공개함과 아울러 담당자가 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조내용도 공표하고 있다. 주민에 대해 보조금의 목적이나 내용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홍보지에 보조내용, 금액, 비도를 명확히 한 일람표를 공표함으로써 보조금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조금자기진단시트(1999년도)>

단체명: _____ 대표자명: _____
 기입자명: _____

다음 항목에 대해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해당하는 기호에 ○를 붙여 주십시오.

1. 단체의 예산에 대한 보조액의 비율

예산액(1999년도)①	千円
전년도이월액②	千円
단년도순예산액①-② ③	千円
보조액(추계)④	千円

의존도④/③×100	%
------------	---

- 1) 10% 미만
- 2) 10% 이상 - 20% 미만
- 3) 20% 이상 - 35% 미만

- 4) 35% 이상 - 50% 미만
- 5) 50% 이상

2. 단체의 예산에 대한 이월금의 비율

예산액(1999년도)①	千円
전년도이월액②	千円
단년도순예산액①-② ③	千円

의존도②/③×100	%
------------	---

- 1) 10% 미만
- 2) 10% 이상 - 15% 미만
- 3) 15% 이상 - 20% 미만
- 4) 20% 이상 - 30% 미만
- 5) 30% 이상

3. 단체의 보조금의 비도에 대해

① 사업비보조에 대해

- 가. 보조액은 사업비의 1/4이하이다
- 나. 보조액은 사업비의 1/2이하이다
- 다. 보조액은 사업비의 1/2보다 많다

4. 보조금의 비도를 포함한 경리상황

- 가. 영수서나 장부등을 갖추어 비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나. 비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5. 보조금이외(회원으로 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등)의 재원 확보에 대해

- 가. 예산의 절반이상의 액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나. 예산의 절반미만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다. 확보하고 있지 않다

6.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가

- 가. 공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나. 공헌하고 있지 않다

7. 단체가 행하는 사무처리에 대해

- 가. 전부 단체가 행하고 있다
- 나. 일부를 町의 직원이 행하고 있다
- 다. 대부분을 町의 직원이 행하고 있다

8. 보조금신청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성에 대해

- 가. 보조금의 신청시에 사업계획 및 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또한 구체적이다
- 나. 보조금의 신청시에 사업계획 및 사업 내용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 다. 사업내용이 미정이다

9. 町에서 보조금이외의 간접적인 원조를 받고 있는가

- 가. 받고있지 않다
- 나. 받고 있다(일반주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받고 있다)
- 다. 받고 있다(상기 이외에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 10. 각 단체가 사업실시에 있어서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5. 제도도입의 효과

보조금의 개선이란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적극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인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개선작업을 주민과 행정의 일체가 되어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을 가까이 느끼고 누구라도 지역가꾸기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의식이 배양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보조금의 개선작업과 그 결과의 공표에

의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미야시로마찌 및 주민들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보조금자기진단시스템제도 도입의 큰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V. 맺는말

미야기시로마찌의 통합교부금제도의 도입은 비도가 지정된 보조금을 교부금으로 대체통합하여 포괄보조금화를 현실적으로 정착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자주성을 확보해 주고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하여 보조금심사회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 개선의 과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야마가타현의 보조금자기진단시스템의 도입사례를 보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자기진단하고 이를 교부하는 측에서도 상호 진단하고 나아가 이를 주민에 공표하는 등의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은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운영의 개선에 있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특히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에 대한 보조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